

서울신문

英 최초 우주인 "외계인은 존재하며, 이미 지구에 와 있을 것"

기사입력 2020-01-07 11:11

[서울신문 나우뉴스]



외계인 상상도 (사진=123rf.com)



영국 최초의 우주인인 헬렌 셔먼

영국 최초의 우주인으로 활약했던 우주비행사가 외계인 존재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

미국 CNN의 6일 보도에 따르면 1991년 영국의 첫 우주인으로 미르 정거장에서 임무를 수행한 헬렌 셔먼(56)은 최근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외계인은 존재하며 다른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우주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별이 있고, 각각의 별에는 서로 다른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한다"면서 "그들은 당신이나 나와 닮아있을 수도 있고, 탄소나 질소의 형태로 이뤄져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 그 외계 생명체들은 이미 이곳(지구)에 와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가 그저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미국항공우주국(NASA) 등 굴지의 연구진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외계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셔먼처럼 외계인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처음이 아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비밀 조직을 이끌었던 것으로 알려진 한 남성은 2017년 CNN과 한 인터뷰에서 "외계 생명체가 이미 지구에 당도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한 교수는 지난해 4월 "외계인이 지구인을 납치하는 주된 목적은 인간과의 이종 교배로 혼혈종을 만들어 지구 곳곳에 스며든 뒤 기후 변화 등 지구의 주된 문제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아 주위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

미국의 물리학자 제임스 벤퍼드는 지구에 근접하는 소행성은 외계인의 스파이라고 주장하는 논문

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헬렌 셔먼은 1980년대 후반 당시 과자회사의 연구원으로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우연히 영국 최초의 우주인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접한 뒤 지원했다.

1만 3000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당당히 우주인으로 선발된 그녀를 두고 사람들은 '우주 로또에 당첨된 인물'이라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후 당시 소련에서 훈련을 받은 뒤 1991년 5월 18일부터 일주일 동안 미르 우주정거장에서 머물렀으며, 이후 과학기술 홍보대사로 임명돼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현지에서는 셔먼이 영국의 과학교육 발전과 대중화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며, 영국 최초의 우주인으로서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123rf.com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 [나우뉴스에서 통신원 및 전문 칼럼니스트를 모집합니다]

▶ [네이버에서 서울신문 구독] [나우뉴스 이제 유튜브로 보세요!]

© 서울신문(www.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81&aid=0003056711>
